

경제동향

■ 요약

■ 생산 제조업지수/재고지수

■ 소비 대형소매점 판매액

■ 고용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률·고용률

■ 물가 소비자물가/ 신선식품

한진아(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 부동산 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

■ 금융 가계대출/개인파산/신용보증재단

■ 수출입 수출입액/수출입 품목/국가별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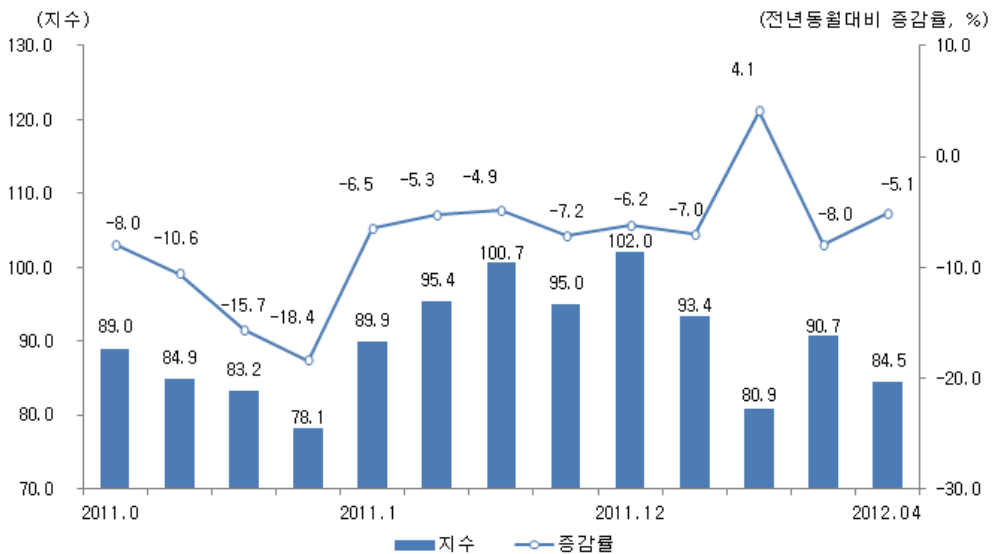
양승희(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소비	<p>서울의 4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0.1%로 증가폭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꾸준히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달 판매액 중심으로 가장 많은 판매를 보인 것은 패션용품과 식품으로 각각 39.8%, 28.2%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동월대비 부문별로 판매액은 백화점 0.5% 감소, 대형마트 1.1% 증가하였으며, 권역별로는 4권역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 및 강동구가 1위, 그 다음으로 1권역(종로, 중구, 용산, 마포, 서대문, 은평)인 것으로 나타났다.</p>
고용	<p>서울의 4월 고용현황은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률이 상승하고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호전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자 수는 증가하였고, 고용률 상승, 실업률 하락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냈다.</p> <p>그러나 연령별 취업자 중 고령층 취업자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청년 취업자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 청년취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또한 현재의 고용현황은 안정화 단계라고 볼 수 없으며 꾸준한 성장을 위해 전반적이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파악된다.</p>
물가	<p>서울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8%로 지난달에 이어 2%대를 나타냈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진 상승을 보인 항목은 생선, 채소, 과일과 같은 신선식품으로 8.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 품목에 비해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신선식품의 물가 안정화를 위해 도시농업과 같은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p> <p>전도시의 물가지수 역시 전년동월대비 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의 물가가 전국에 비해 0.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부동산	<p>서울의 4월 주택매매가격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반면,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어 상승하였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강남구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매매가격, 전세가격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매매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타 지역 대비 높은 가격으로 신규 유입수요가 줄어들면서 물량이 적체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가격은 주택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수요층에 맞는 공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다.</p>

| 생 · 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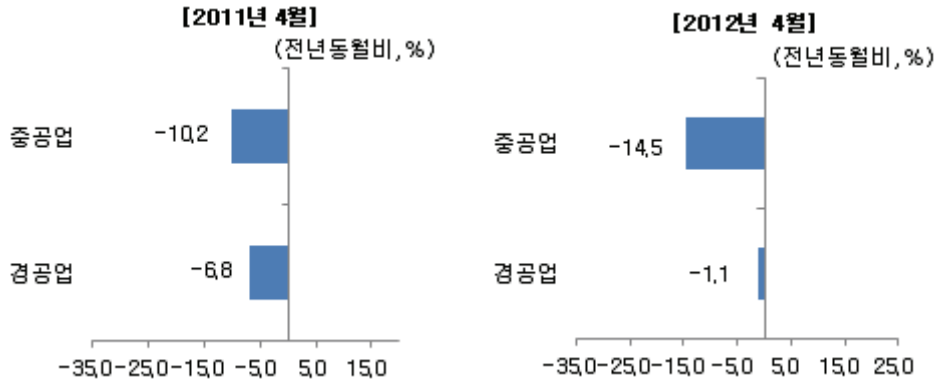
서울의 4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4월 산업생산지수 중공업 부문의 감소로 마이너스 성장세 지속
 - 서울의 4월 산업생산지수는 84.5(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5.1% 감소
 - 중공업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4.5%,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1% 각각 감소
 - 전년동월대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15.5%), 섬유제품(38.4%) 각각 증가하였으며, 전기장비(-58.6%), 고무 및 플라스틱(-35.7%), 기계장비(-32.5%) 각각 감소
 - 중공업, 경공업 부문 모두 감소하여 마이너스 성장세 지속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산업생산(중공업, 경공업) 증감률

■ 전국의 4월 광공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포함

- 전국의 4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23.1(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포함
- 부문별로는 전년동월대비 반도체 및 부품(3.1%), 자동차(4.5%), 화학제품(4.8%)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상음향통신(-12.2%), 비금속광물(-13.1%), 기계장비(-3.2%)는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부동산임대(-5.3%), 협회수리개인(-2.8%), 운수(-2.0%)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보건사회복지(9.4%), 하수폐기물처리(8.4%) 등이 증가하여 1.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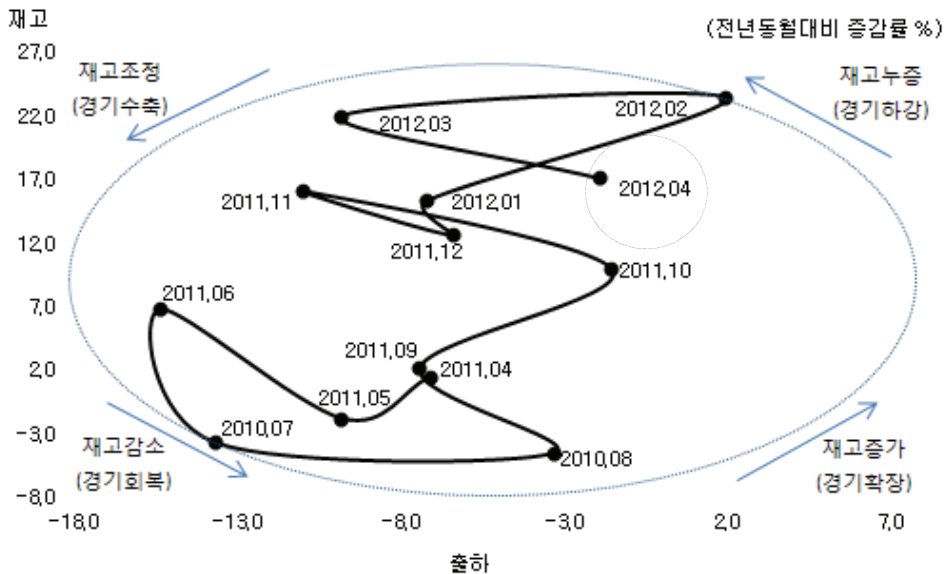
| 출하 · 재고 순환 |

서울의 4월 제조업부문 의도된 재고감소 단계

- 서울의 4월 제조업 전년동월대비 출하 증가, 재고 감소로 경기 수축기
 - 서울의 4월 재고지수는 180.5(2005=100.0)로 전년동월대비 17.1% 증가
 - 서울의 4월 출하지수는 89.0(2005=100.0)로 전년동월대비 2.1% 감소
 - 출하 증가, 재고 감소로 의도된 재고감소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참고>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경기수축기	경기회복기	경기확장기	경기하강기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경기수축)	재고감소 (경기회복)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경기하강)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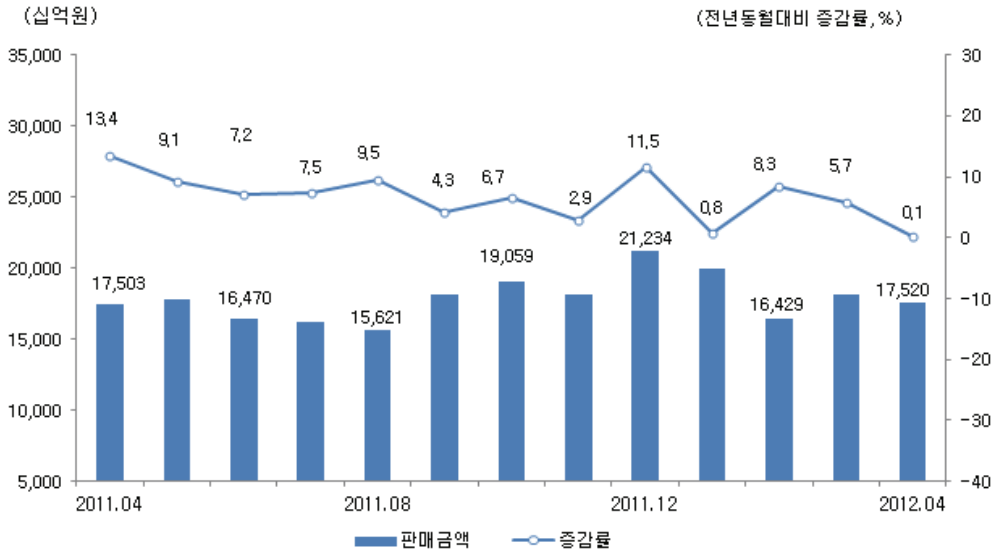
| 소 · 비 |

서울의 4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4월 전년동월대비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대형마트 중심으로 판매액 증가
 - 서울의 4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7,52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1% 증가
 - 전년동월대비 백화점은 0.5% 감소, 대형마트는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판매액 중 패션용품이 39.8%인 6천966억원, 식품이 28.2%인 4천950억원, 생활용품이 20.9%인 3천667억원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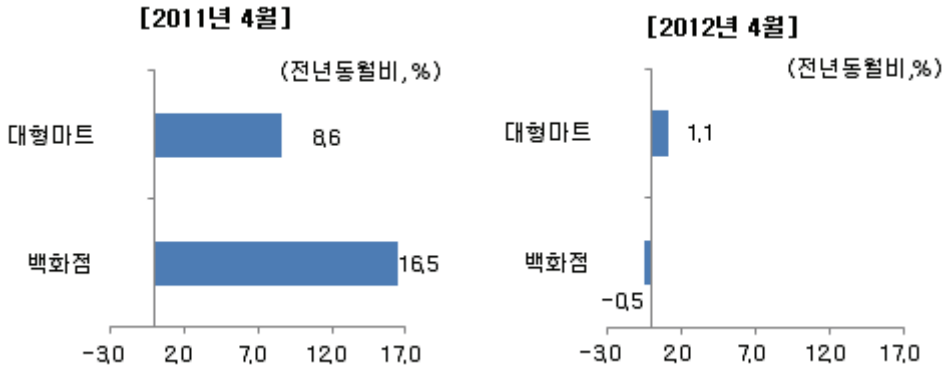
- 서울의 4월 대형종합소매업의 판매액 중 패션용품, 권역별로는 강남 3구 각각 1위
 - 백화점 판매액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패션용품(54.5%)이며, 대형마트는 식품(56.1%)인 것으로 나타남
 - 백화점 1개점 평균 매출액은 387.4억원이며, 대형마트는 91.4억원임
 - 권역별로는 4권역(강남, 서초, 송파, 강동)이 37.0%인 6천474억원을 판매하였고, 다음으로 1권역(종로, 중구, 용산, 마포, 서대문, 은평), 3권역(동작, 관악, 영등포, 금천, 구로, 양천, 강서) 순으로 나타남

- 전국의 4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소폭 증가세
 - 전국의 4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0.4% 증가
 -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0.7%, 대형마트는 1.6% 각각 감소
 - 유형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의복 등 준내구재(-1.4%)는 감소하였으나,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1.3%), 컴퓨터·통신기기 등 내구재(1.3%)의 판매가 늘어 전반적으로 0.4% 증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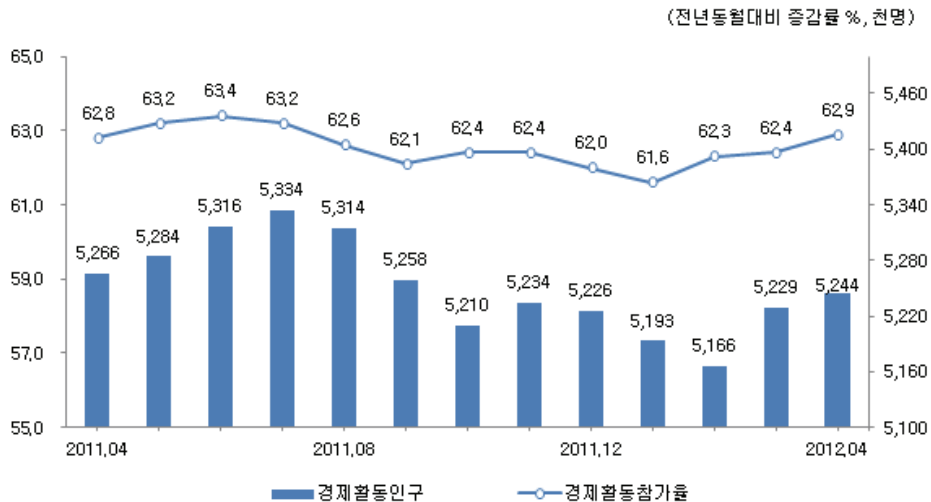
서울의 4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4월 경제활동참가율 평균 62%로 횡보 유지

- 서울의 4월 15세 이상 인구는 8,41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천명(0.1%)이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5,29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천명(0.2%)이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2.9%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비경제활동인구는 3,12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천명(0.0%)이 감소

■ 전국의 4월 전년동월대비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 전국의 4월 15세이상인구는 4,145만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만6천명(1.2%)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2,565만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1만4천명(1.6%)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1.9%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3.7%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였고, 여자는 50.5%로 0.3%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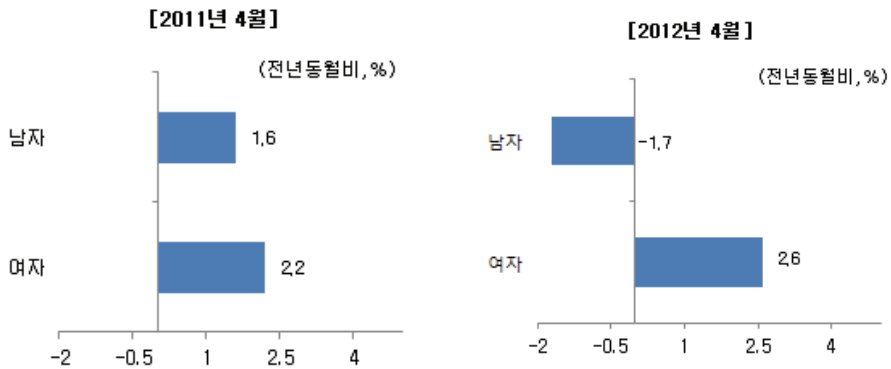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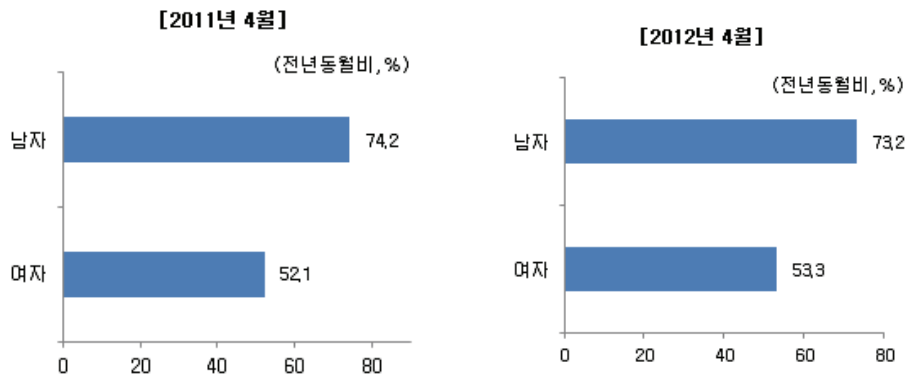
<그림> 서울의 경제활동 인구 및 참가율 추이

■ 서울의 4월 전년동월대비 경제활동참가율 남자 하락, 여자 상승

- 경제활동인구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2,974천명, 여자는 2,32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1.7% 하락, 여자는 2.6%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남자는 73.2%, 여자는 53.3%로 전년동월대비 남자, 여자 각각 1.0%p 하락, 1.2%p 증가



<그림> 서울 성별 경제활동인구 증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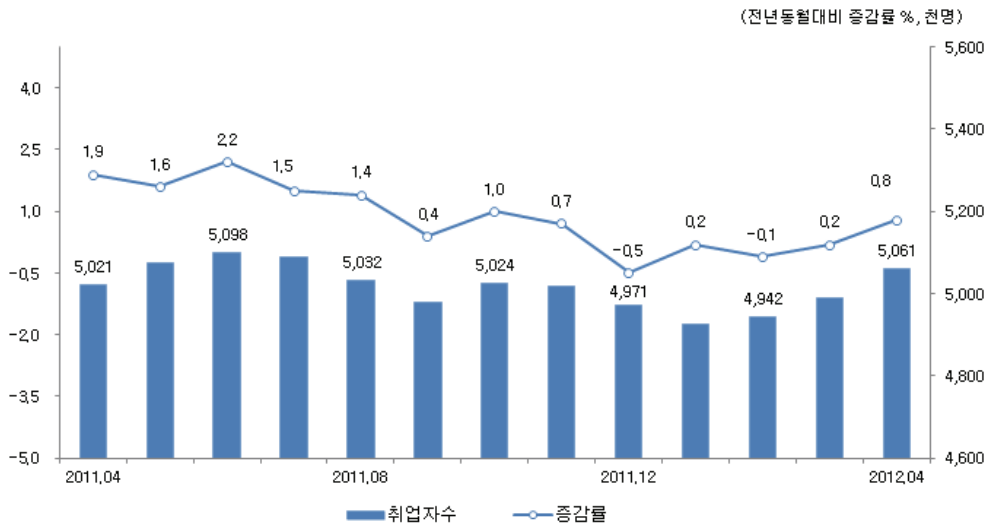
<그림> 서울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 취·업·자 |

서울의 4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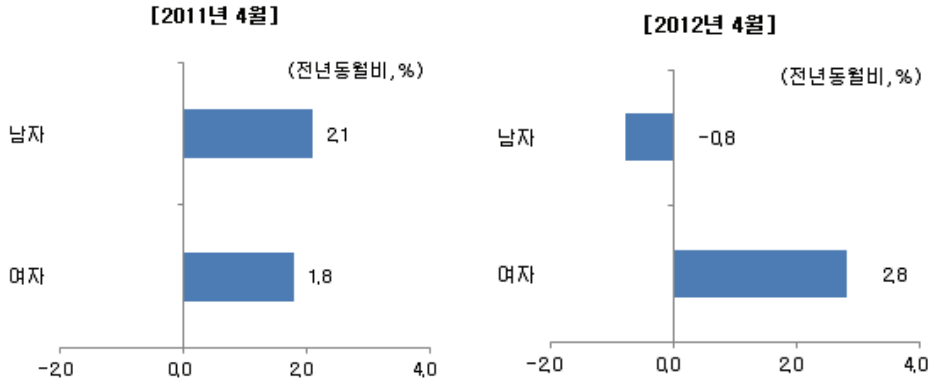
- 서울의 4월 여성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 4월 취업자는 5,06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천명(0.8%)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32천명, 여자는 2,22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22천명(-0.8%)이 감소한 반면, 여자는 61천명(2.8%)이 증가

- 전국의 4월 남, 녀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각각 증가
 - 전국의 4월 취업자는 2,475만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5만5천명(1.9%)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39만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만5천명(1.7%) 증가하였고, 여자는 1,036만2천명으로 21만명(2.1%) 증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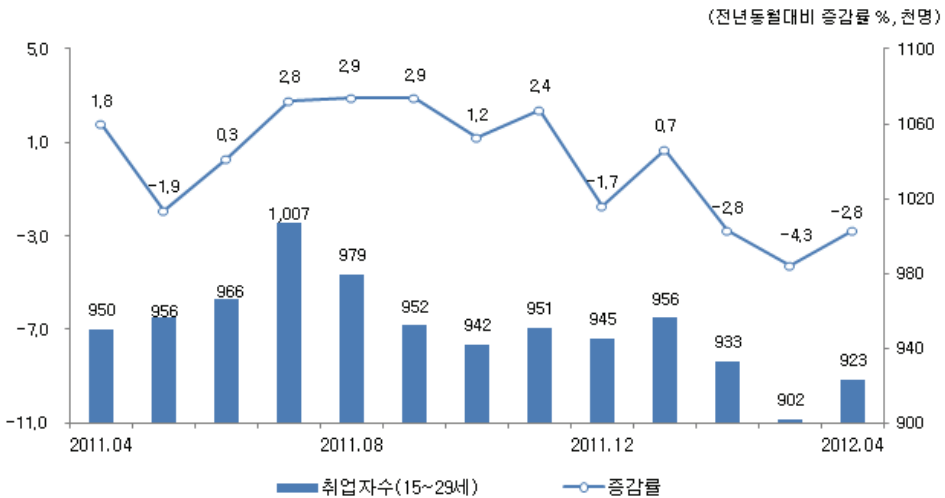
<그림> 서울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의 성별 취업자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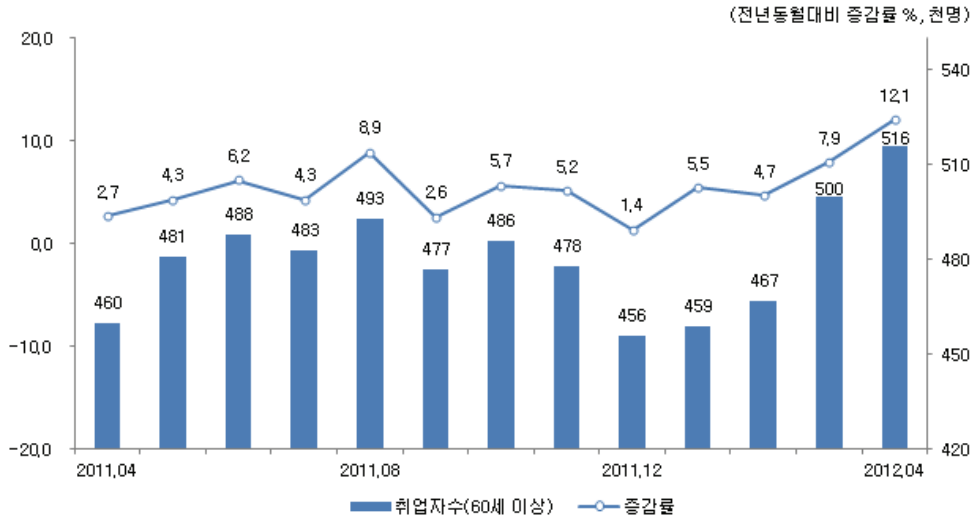
■ 서울의 4월 청년층(15세~29세) 감소,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증가

- 서울의 4월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8% 감소하여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 지속
- 서울의 4월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2.1%로 꾸준한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15세~29세)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고령층 취업자(60세 이상) 추이

■ 산업별로 농림어업, 사무종사자, 서비스·판매종사자 각각 증가

-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천명(23.5%), 사무종사자 42천명(4.3%), 서비스·판매종사자 7천명(0.5%)이 각각 증가
- 관리자전문가 9천명(-0.6%),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2천명(-0.1%)은 각각 감소

■ 직업별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제조업 각각 증가, 그 외 나머지 종사자는 감소

- 전년동월대비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69천명(3.5%), 제조업 2천명(0.4%)이 각각 증가
- 농림어업 1천명(-8.5%), 건설업 25천명(-6.4%), 도소매·음식숙박업 5천명(-0.4%), 전기·운수·통신·금융업 2천명(-0.2%)은 각각 감소

■ 종사상지위별로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중 일용근로자 각각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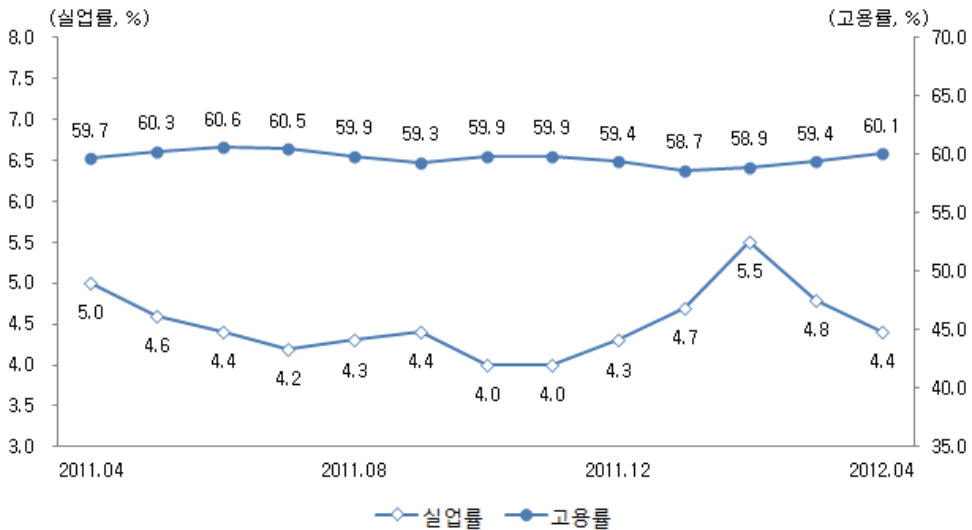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6천명(-0.6%), 무급가족종사자는 19천명(-10.2%)이 각각 감소
- 임금근로자 중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는 77천명(3.4%), 임시근로자는 21천명(1.8%)이 각각 증가한 반면, 일용근로자는 33천명(-7.9%)이 감소

| 고 · 용 · 률 · 및 · 실 · 업 · 률 |

서울의 4월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상승, 실업률 하락

- 서울의 4월 고용률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상승
 - 서울의 4월 고용률은 60.1%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9.7%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한 반면, 여자는 51.2%로 1.2%p 상승
 - 서울시 고용률은 전국의 고용률(59.7%)에 비하여 0.4%p 높은 수준임

- 서울의 4월 실업률 전국대비 0.9%p 높은 수준
 - 서울의 4월 실업자는 23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천명(-11.7%)이 감소
 - 실업률은 4.4%로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7%로 전년동월대비 0.9%p, 여자는 3.9%로 0.2%p 각각 하락
 - 서울시 실업률은 전국(3.5%)에 비하여 0.9%p 높은 수준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 실업률, 고용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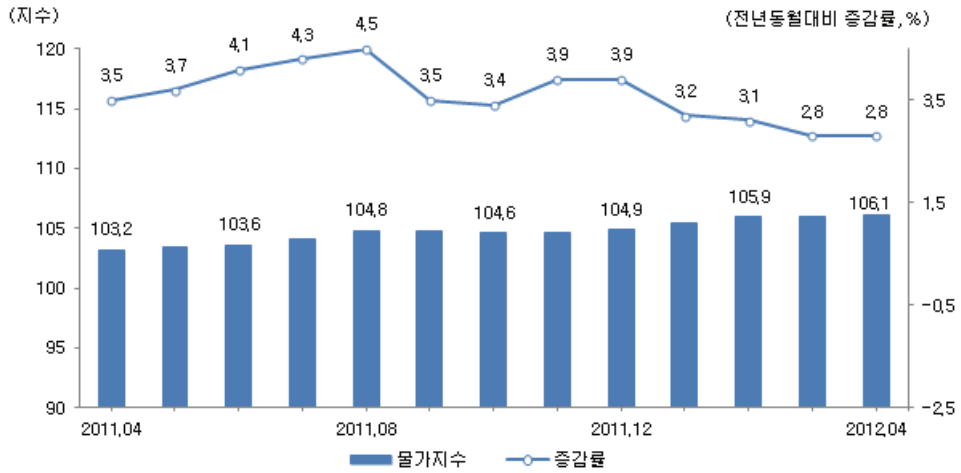
| 물 · 가 |

서울의 4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4월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지난달에 이어 2%대 시현
 - 서울의 4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6.1(2010년=100.0)으로 전년동월대비 2.8% 상승하였으며, 부문별로 통신부문이 3.4%, 기타상품 및 서비스 부문 각각 하락, 그 외의 부문은 모두 상승
 - 상품은 전년동월대비 4.3% 상승, 그 중 농축수산물은 4.1%, 공업제품은 3.8% 각각 상승
 - 서비스는 전년동월대비 1.9% 상승, 그 중 집세는 4.8%, 공공서비스 1.7%, 개인서비스 0.5% 각각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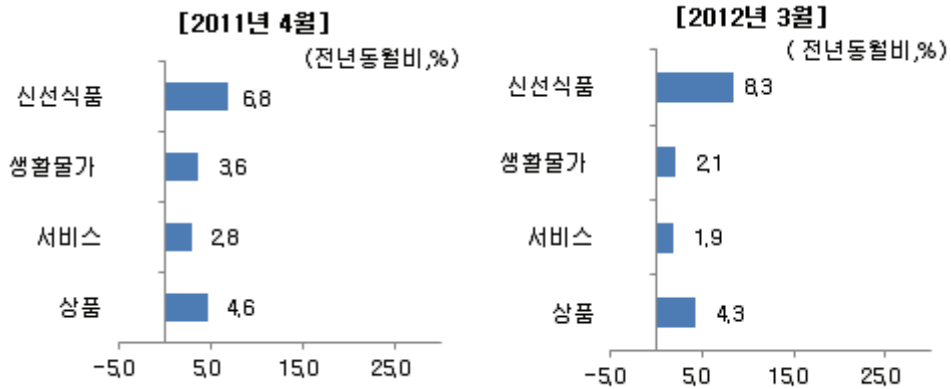
- 서울의 4월 전년동월대비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각각 상승
 - 소비자들의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1% 상승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동월대비 8.3% 상승

- 전국 4월 소비자물가 대구, 충남, 서울 등 6개 시도를 중심으로 상승
 - 전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6.0(2010년=100)으로 전월대비 포함, 전년동월대비로는 2.5% 상승하여 지난달에 이은 2%대 시현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하락, 전년동월대비 2.0%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1.4% 하락, 전년동월대비 6.9% 상승
 - 16개 광역시도별로 전월대비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대구, 충남 등 6개 시도는 0.1~0.3%씩 상승하였고, 광주, 울산 등 6개 시도는 변동이 없으며, 나머지 4개 시도는 0.1~0.2%씩 하락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2005=100)

<그림>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



<그림> 서울의 소비자 물가 동향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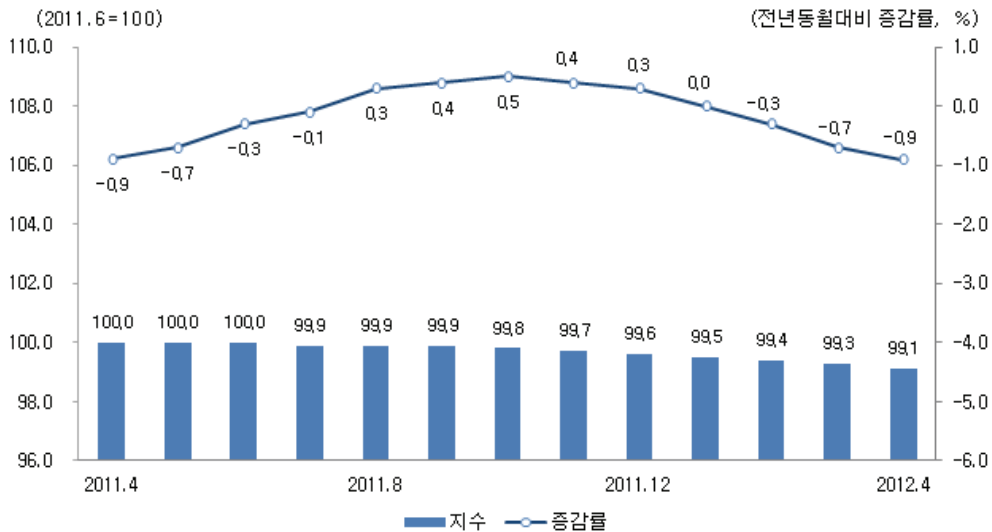
서울의 4월 주택매매가격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6개월 연속 하락세

■ 서울의 4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하락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과 4·11 총선으로 인해 수요자들의 매수 시장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전월대비 0.3% 하락하여 6개월 연속 하락세
- 주택유형별로 단독주택은 전월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된 반면,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하락폭이 소폭 확대되며 각각 0.4%, 0.1% 하락

■ 전국의 4월 주택매매가격 상승폭 축소되어 5개월 연속 상승세

-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광역시와 기타지방의 상대적인 강세가 지속되면서 5개월 연속 0.1% 상승
- 수도권은 하락폭이 소폭 확대되어 전월대비 0.3% 하락한 반면 광역시와 기타지방은 전월대비 각각 0.3%, 0.5% 상승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그림〉 서울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강북지역은 종로구에서 상승한 가운데, 마포구와 노원구 등에서 하락하며 전월대비 0.2% 하락**
 - 종로구는 종로와 대학로 지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한 혜화동과 이화동의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에서 수요가 발생하면서 전월대비 0.1% 상승
 - 마포구는 투자수요 급감에 실수요자들의 수요도 감소하며 물량이 적체되는 가운데, 수요자들의 매매시장 관망세가 지속되어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전월대비 0.4% 하락
 - 노원구는 인근 남양주시 별내지구 입주물량의 영향으로 기존 단지의 중대형을 중심으로 물량이 적체되며 전월대비 0.3%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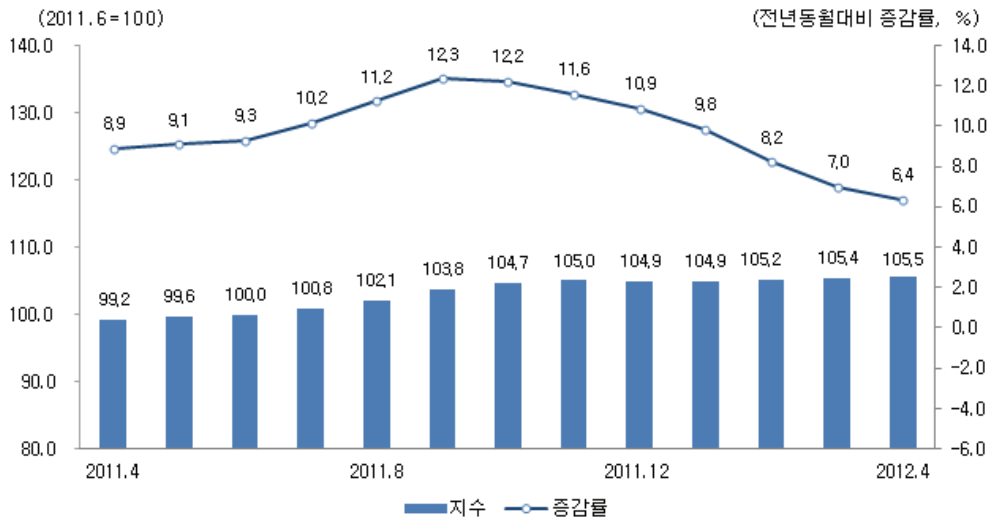
- **강남지역은 관악구만 보합을 유지한 가운데 전월대비 0.4% 하락하며 6개월 연속 하락세**
 - 송파구는 재건축 아파트 소형비율 확대 요청 등 서울시의 재건축 정책들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잠실동, 문정동 등에서 매매가격이 하향 조정되면서 전월대비 0.7% 하락
 - 강남구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매매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매수세 부진이 일반단지들로도 확대되며 개포동, 압구정동을 중심으로 하락이 지속되면서 전월대비 0.6% 하락

- **서울의 4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전월대비 소폭 하락**
 - 서울의 4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은 평균 1740.4만원으로 전월대비(1751.2만원)대비 하락하여 14개월 연속 하락세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모두 3개월 연속 하락하였고 강남구(3,125만원), 서초구(2,816만원), 용산구(2,508만원), 송파구(2,261만원), 양천구(1,830만원), 광진구(1,822만원), 강동구(1,76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1,012만원), 도봉구(1,073만원), 중랑구(1,117만원), 강북구(1,125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서울의 4월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상승폭 축소

- 서울의 4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상승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윤달로 인한 신혼부부 전세수요 감소하면서 전월대비 상승폭이 소폭 축소되어 0.1% 상승
 - 주택유형별로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이 전월대비 각각 0.1% 상승하였고 아파트는 보합
- 전국의 4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상승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광역시와 기타지방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며 전월대비 각각 0.6%, 0.9% 상승하였으나 봄 이사철의 조기 마무리로 이동 수요가 감소하면서 전국적으로 0.4%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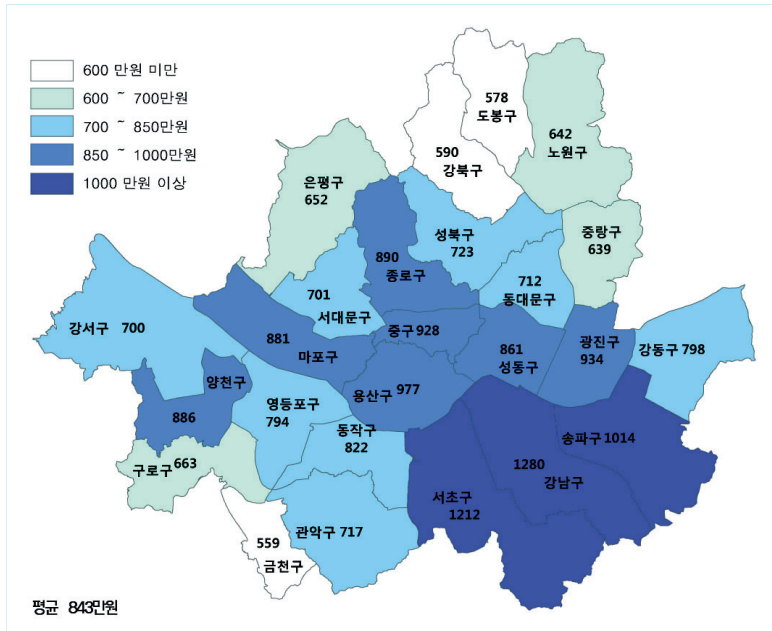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그림> 서울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강북지역은 광진구와 동대문구 등에서 상승하고 노원구에서 하락하면서 전월대비 0.2% 상승**
 - 광진구는 역세권 인근으로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광진구과 구의동의 소형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5% 상승
 - 동대문구는 기존 임차인의 재계약과 임대인의 월세선호 현상이 이어지며 전세물량 부족으로 전월대비 0.4% 상승
 - 노원구는 인근 남양주시 별내지구의 신규단지 입주영향으로 기존 단지의 물량이 적체 되면서 전월대비 0.3%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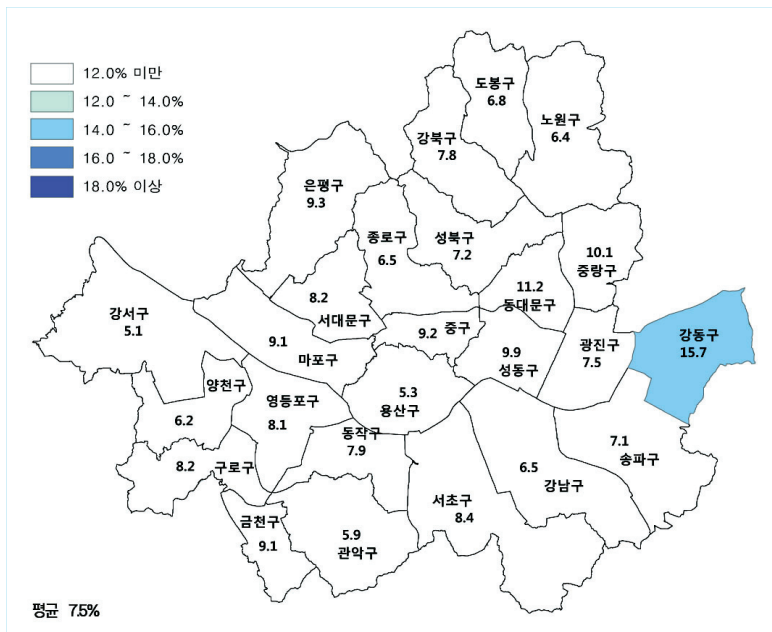
- **강남지역은 금천구와 관악구 등에서 상승한 가운데 강남구, 강동구에서 하락하며 보험으로 전환**
 - 금천구는 인근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부담이 적어 직장인 수요가 꾸준한 지역으로 소형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0.5% 상승
 - 강남구는 타 지역 대비 높은 가격으로 신규 유입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소형마저도 수요가 줄어들어 전월대비 0.4% 하락
 - 강동구는 고덕시영 재건축 이주가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급등했던 전세가격이 하향조정 되면서 전월대비 0.2% 하락

- **서울의 4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월대비 소폭 하락**
 - 서울의 4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은 평균 843.2만원으로 전월대비(845.0만원) 소폭 하락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전세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1,280만원), 서초구(1,212만원), 송파구(1,014만원), 용산구(977만원), 광진구(934만원), 중구(928만원), 종로구(890만원), 양천구(886만원), 마포구(881만원), 성동구(861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전세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559만원), 도봉구(578만원), 강북구(590만원), 중랑구(639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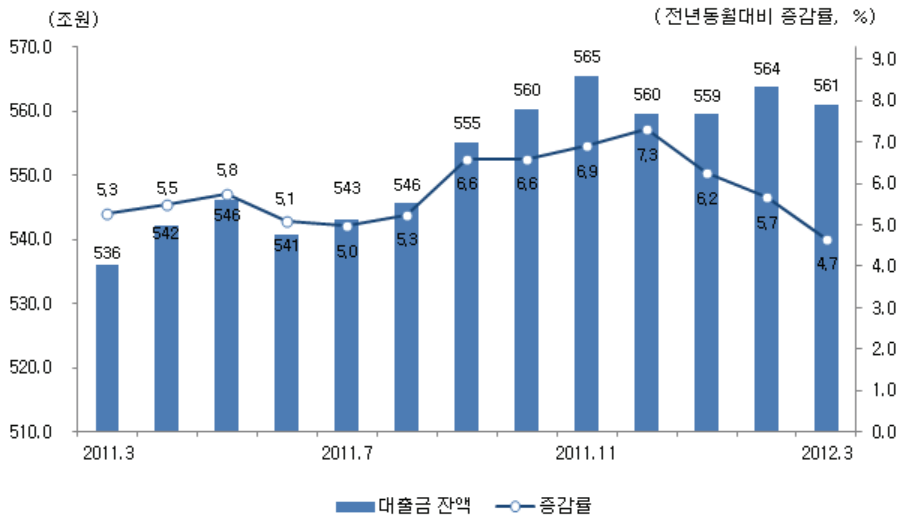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가 · 계 · 대 · 출 |

서울의 3월 은행의 가계대출 전월대비 소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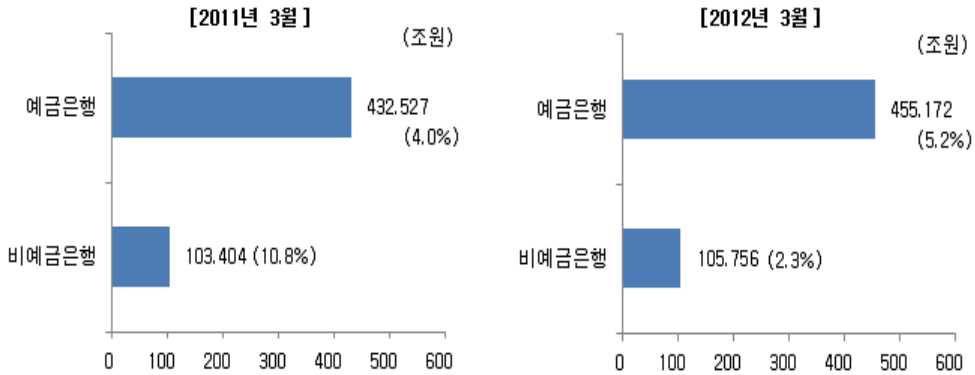
- 3월 기준 서울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감소
 - 3월 중 서울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560조 9,286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2조 7,646억원(0.49%) 감소
 - 전체 대출금 잔액 중 예금은행은 455조 1,724억원 규모, 비예금은행은 105조 7,562억원 규모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5.2%, 2.3% 증가
- 3월 기준 전국지역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4개월만에 상승으로 전환
 - 3월 중 전국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1,411조 7,380억원으로 전월대비 5조 2,750억원(0.38%) 증가



주 : 말잔 금액,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및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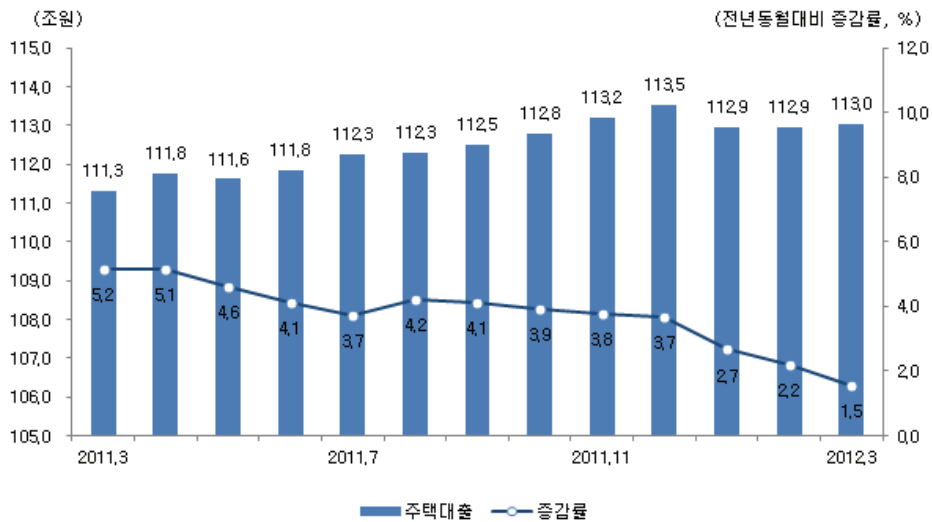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

■ 3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소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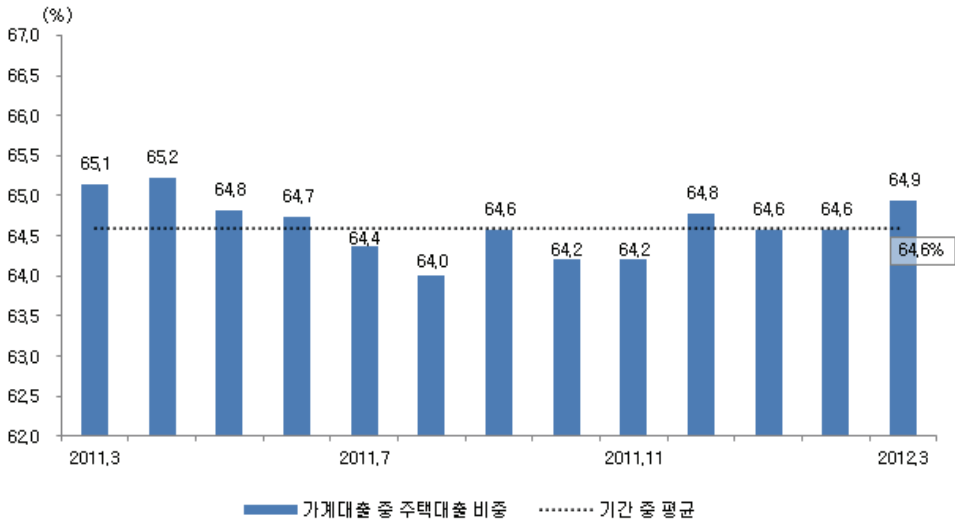
- 3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174조 449억원으로 전월대비 338억원(0.2%) 감소하였고 그 중 주택대출은 113조 18억원(64.9%)으로 전년동월대비 1.5% 증가



주 : 말잔 금액,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이외의 대출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주택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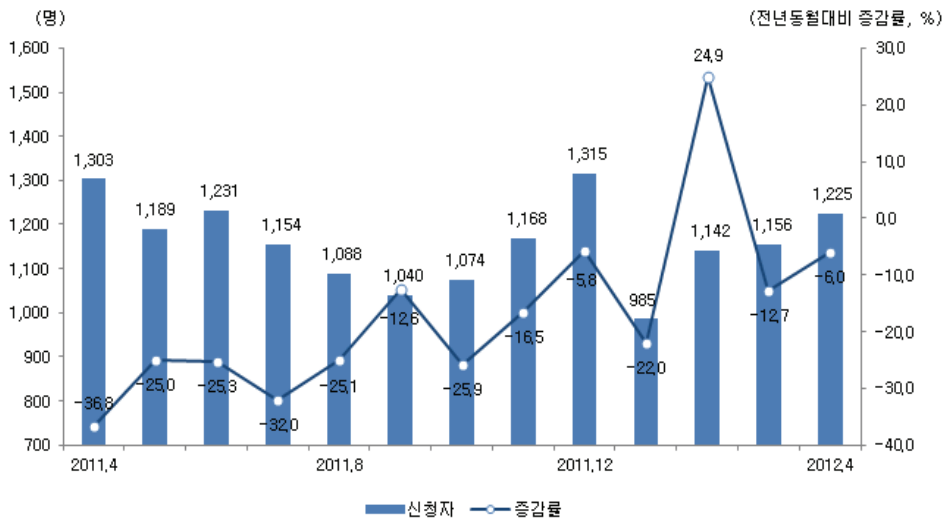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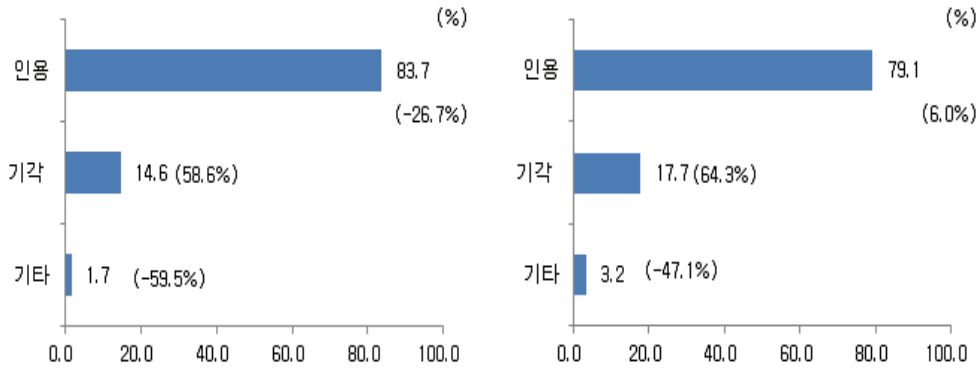
■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대비 증가

- 4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1,225명으로 전월대비 6.0% 증가, 전년동월대비 6.0% 감소
- 개인파산 선고전 기각률은 14.6%로 전월대비 2107.7% 증가하였고 면책 기각률도 17.7%로 전월대비 1259.1% 증가



자료 : 대법원

<그림> 서울시 개인파산 신청자 추이



주 : 인용은 정당하다고 인정, 기각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대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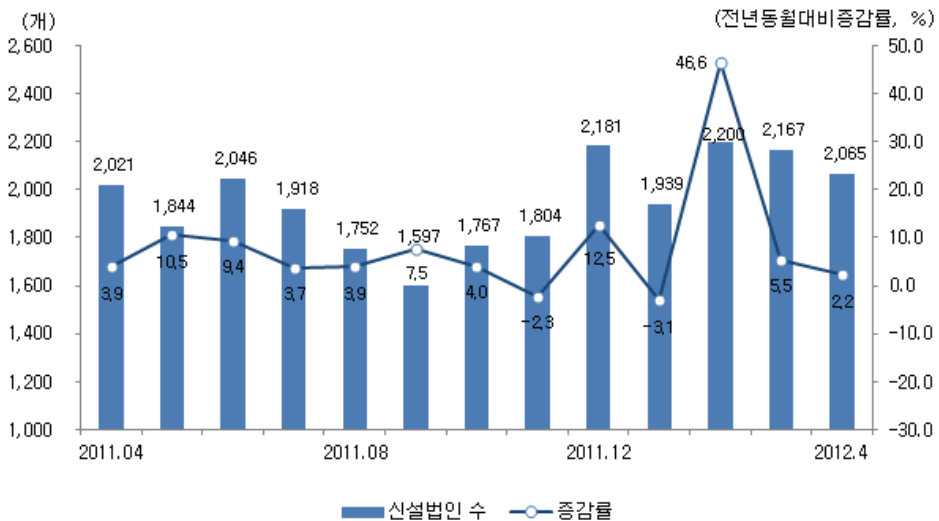
<그림> 4월 개인파산 선고전 처리현황

<그림> 4월 면책 처리현황

| 신 · 설 · 및 · 부 · 도 · 법 · 인 · 동 · 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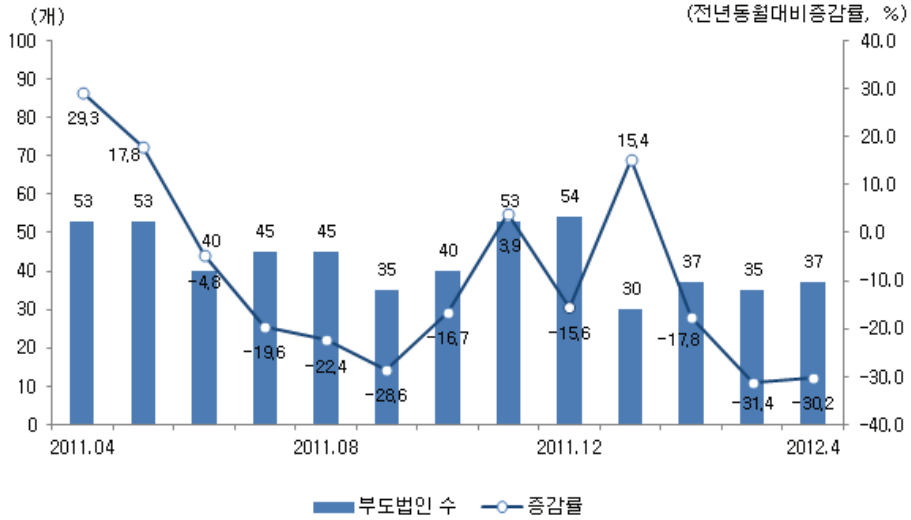
서울의 4월 신설법인 전월대비 소폭 감소

- 서울의 4월 신설법인 수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월대비 감소
 -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2,065개로 전월대비 4.7%(102개) 감소, 전년동월대비 2.2%(44개) 증가
 -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전월대비 각각 11.6%(32개), 4.3%(75개) 감소한 가운데, 건설 및 설비업은 전월대비 2.2%(3개) 증가
- 서울의 4월 부도업체 수 건설 및 설비업 중심으로 전월대비 소폭 증가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37개로 전월대비 5.7%(2개) 증가하였고 전년동월대비 30.2%(16개) 감소
 - 업종별로는 건설 및 설비업이 전월대비 16.7%(1개) 증가하였고 서비스업과 제조업은 전월대비 보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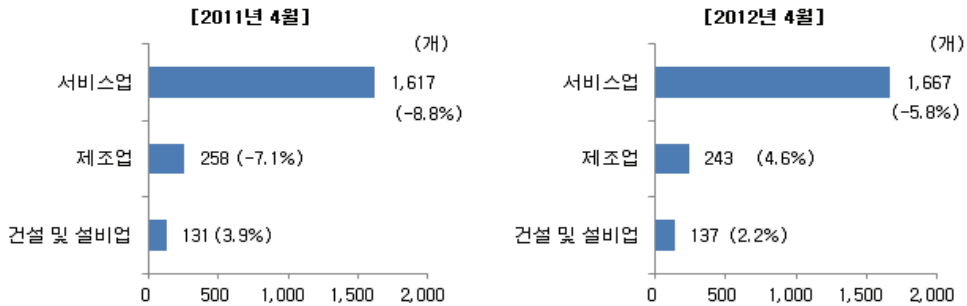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신설법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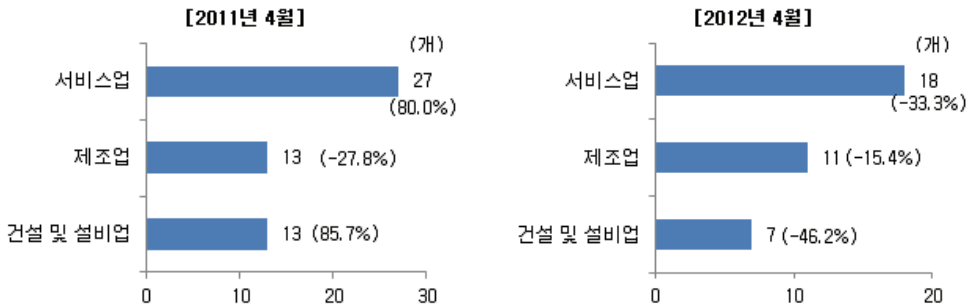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부도법인 추이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그림> 서울시 산업별 신설법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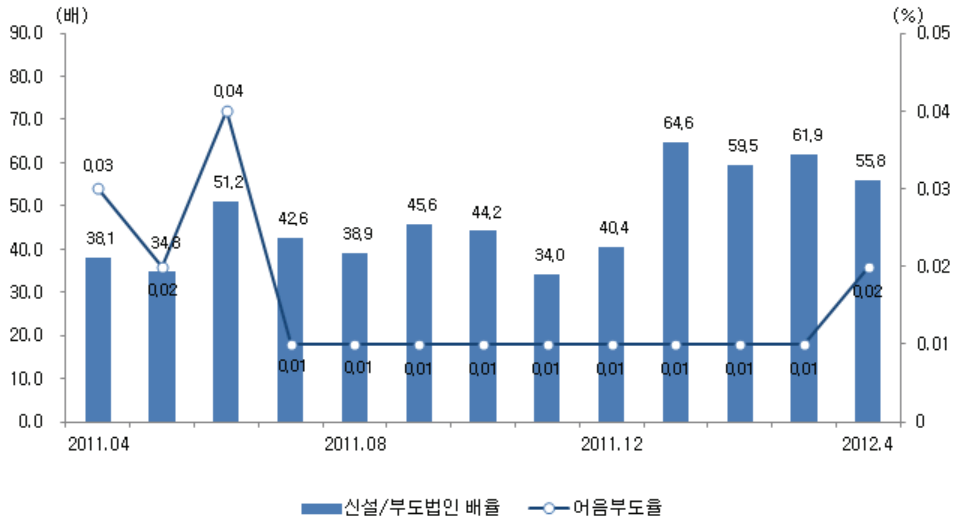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그림> 서울시 산업별 부도법인 현황

■ 서울의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배율 전월대비 감소

- 4월 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2% 이고 서울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55.8배로 전월(61.9배)보다 감소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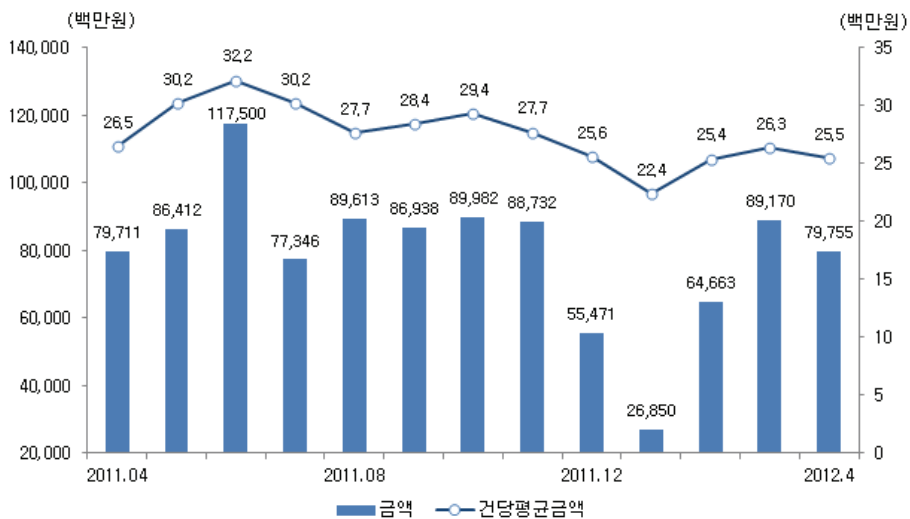
<그림> 서울시 어음부도율 및 신설/부도법인 배율 동향

| 신·용·보·증·동·향 |

서울의 4월 신용보증 건당 평균금액 전월대비 감소

■ 보증지원 금액과 건당 평균지원 금액은 전월대비 감소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4월 중 3,131건, 79,755백만원으로 전월대비 보증건수 7.5%, 보증금액 10.6%, 건당 평균지원금액 3.0% 감소
- 전년 동월대비 보증지원 건수는 3.1%, 보증금액 21.2%, 건당 평균 지원금액 18.1% 증가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건당 평균 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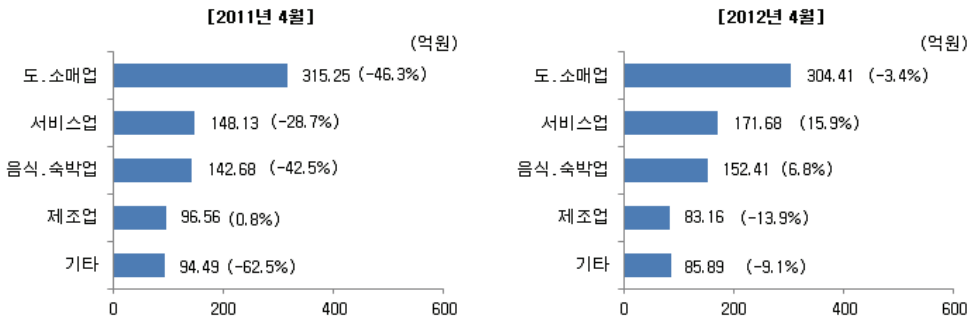
■ 도·소매업 지원금액 비중 전월대비 소폭 상승

- 4월중 도·소매업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공급금액기준 38.2%로 전월(37.1%)대비 1.1%p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종에 대한 지원은 21.5%로 전월(22.6%)대비 1.1%p 감소

- 보증건수 기준 시 서비스업종은 24.5%로 전월(23.2%)대비 1.3%p 증가한 반면, 제조업종은 7.9%로 전월(8.0%)대비 1.1%p 감소

■ 소상공인 지원금액 비중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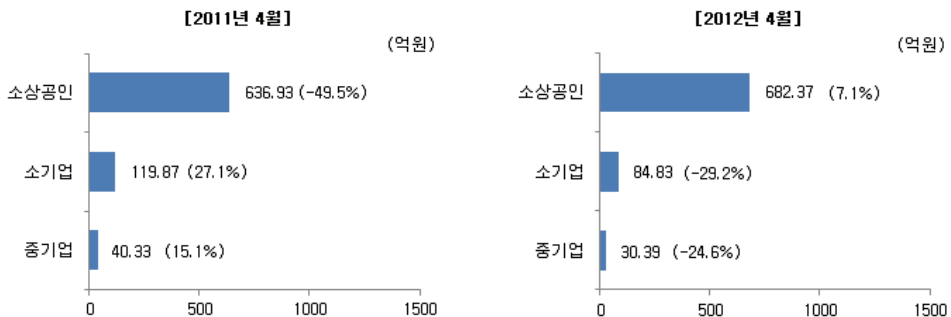
-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 비중은 소상공인이 금액기준 85.6%로 전월대비 1.2%p 증가하고 건수기준으로는 93.7%로 전월대비 0.3%p 증가
- 소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 10.6%로 전월대비 1.0%p 증가하였고 건수기준으로는 4.3%로 전월대비 0.3%p 감소한 반면, 중기업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3.8%, 건수기준으로는 1.9%로 전월대비 각각 2.2%p, 0.1%p 감소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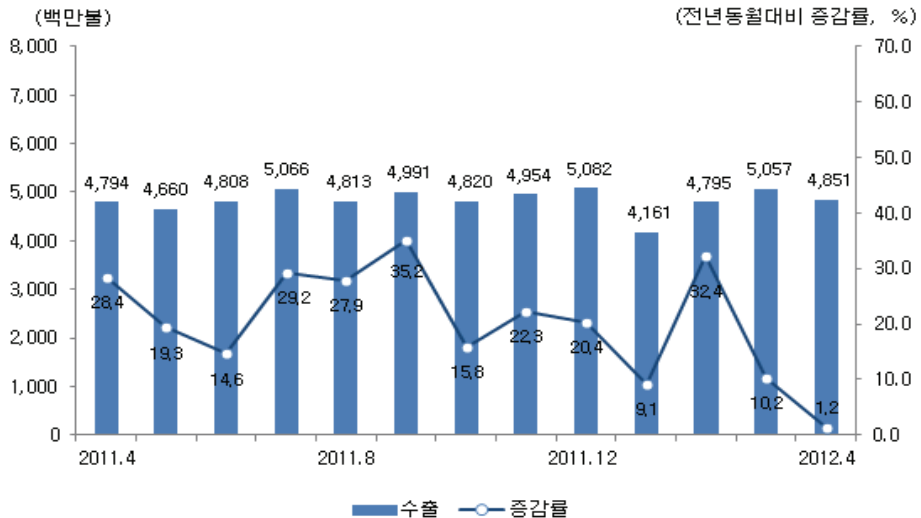
<그림>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

| 수 · 출 · 입 · 동 · 향 |

서울의 4월 수출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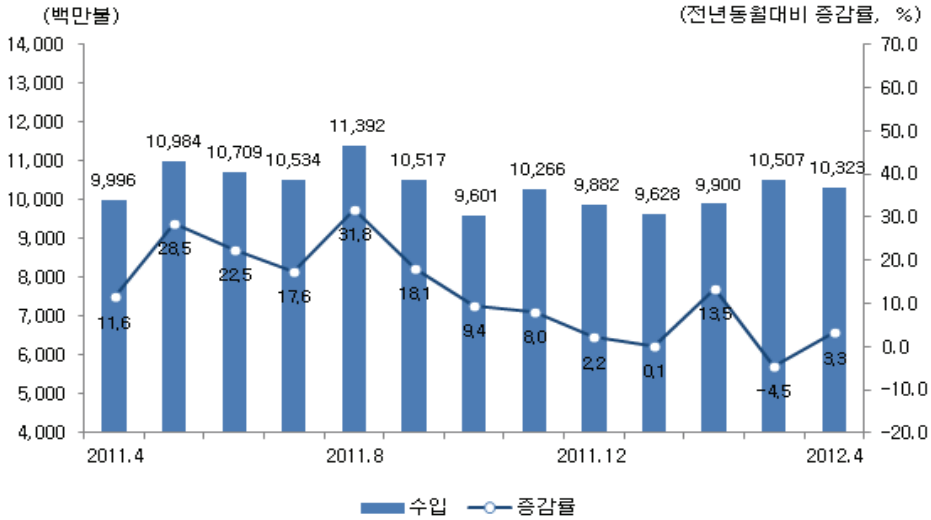
- 서울의 4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소폭 증가
 - 서울의 수출은 48.5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1.2% 증가하였고 수입은 103.2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3.3% 증가
 - 전국의 수출은 476.2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4.8% 감소하였고 수입은 440.8억 달러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0.2% 감소

- 서울의 4월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579백만불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자동차부품, 반도체, 편직물, 고무제품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석유제품이 1,064백만불을 기록하였고 다음은 반도체, 컴퓨터, 의류, 자동차 등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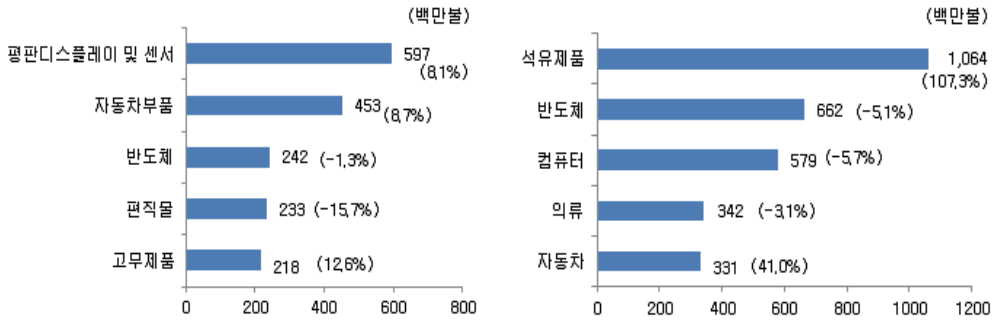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입액 및 증감률 추이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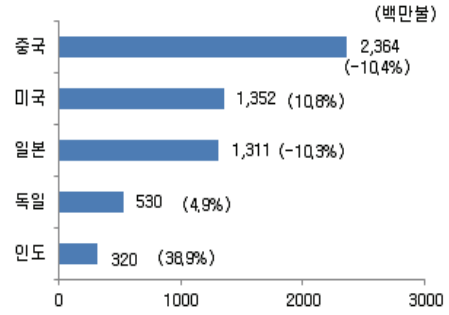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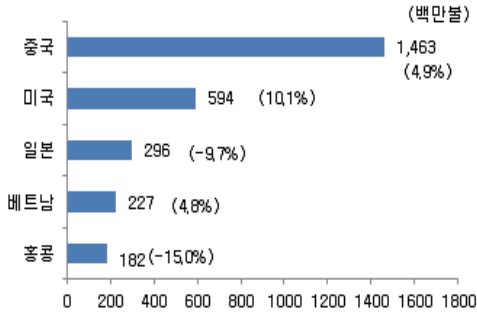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4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

<그림> 4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

■ 서울의 4월 수출입국 1순위는 중국

- 서울의 국가별 수출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4.9% 증가한 1,463백만불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 일본, 베트남, 홍콩 순
- 서울의 국가별 수입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10.4% 감소한 2,364백만불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 미국, 일본, 독일, 인도 순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무역협회

〈그림〉 4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

〈그림〉 4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

〈표〉 4월 주요 FTA 대상국별 서울시 수출입 품목

구분	순위	품목명	수출		품목명	수입	
			천불	증가율		천불	증가율
미국		합계	594,193	10.1	합계	1,352,329	10.8
	1	자동차부품	108,797	18.5	항공기및부품	226,743	326.3
	2	고무제품	79,142	9.9	곡식류	77,059	-12.0
	3	무선통신기기	53,203	21.4	기초유분	73,966	-7.4
싱가포르		합계	67,637	26.2	합계	277,665	7.7
	1	반도체	21,147	19.3	반도체	102,077	0.5
	2	항공기및부품	7,196	-	컴퓨터	44,346	-10.5
	3	컴퓨터	2,881	-19.5	석유제품	26,070	5.7
페루		합계	6,746	13.4	합계	1,890	-47.5
	1	합성고무	972	182.2	의류	761	-4.8
	2	합성수지	877	-29.0	수산가공품	378	44.3
	3	편직물	563	-11.7	곡식류	363	503.0
칠레		합계	11,489	0.8	합계	96,422	60.8
	1	자동차	2,580	-19.4	곡식류	40,881	24.1
	2	고무제품	2,115	137.7	동제품	28,400	1,085.7
	3	건전지및축전지	1,295	84.0	육류	11,653	31.6
인도		합계	127,398	25.3	합계	320,242	38.9
	1	합성고무	30,561	6.5	석유제품	203,938	66.0
	2	자동차부품	19,867	51.9	기초유분	33,862	124.9
	3	합성수지	13,193	100.3	천연섬유사	15,835	-23.2